

육십령 옛 고갯길에 '지역특화조림'

(장수군 명덕리 일원)

도, 사업 기본계획 용역 착수... 40억원 들여 2017년~2021년까지 200ha 규모 밀원단지 조성

장수군 명덕리 일원에 지역특화조림이 진행된다.

전북도는 장수군 명덕리 일대 백두대간 영·호남 경계지역인 육십령 옛 고갯길 주변에 200ha 규모의 지역특화조림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용역은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총 40억원을 들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는 환경·산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동부산악권 고원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 수종으로 차별화된 명품 숲이 조성된다.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원단지 조성 목적으로 아카시아, 밤나무, 헛개나무 등을 집중적으로 심을 예정이다.

도는 "육십령 옛 고갯길 지역특화조림 사업은 영·호남간 동서회합의 장 분위기 조성과 백두대간 기능회복에 도움을 주고 산악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25일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에서 BMW코리아 미래재단이 지역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친환경 자동차'를 주제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 유해동물 예방철책 직접설치

전북도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차단 철책 설치에 나선다.

전북도는 종전 개별 농가들이 설치하는 전기울타리, 방조망의 설치비 지원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지자체가 직접 철책 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도는 내년에 총 8억2,300만원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가운데 2억원을 투입해 차단시설과 포획틀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차단시설의 경우 야생동물의 출현이 잦은 지역에 기둥을 세운 뒤 철망으로 막아 농경지 진입을 막는 시설로 보통 1km를 설치하는데 약 2억 원 가량이 소요된다.

도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한 뒤 연차사업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개체 수 조절과 함께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농가와 지자체가 동시에 추진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국 지자체 핵심 간부 '국정시책 세미나'

전북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시·도 실·국장, 시·군·구 국장급 480여명 대상

전국의 핵심 간부공무원 400여명이 완주에 모였다.

25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주낙영)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지방핵심 간부 48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정까지 공유를 위한 국정시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15년 지방핵심간부 국정시책세미나 개최에 이어 지속적인 공유와 지역 간 네트워크·정보교환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실질적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시도 실·국장, 시·군·구 국장급을 대상으로 개최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오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고, 하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성공사례로 본 갈등조정 전략 등을 강의했다.

주낙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지방은 모든 국가정책이 완성되는 현장이며,



10월 25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지방핵심 간부 4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시책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체감하는 최일선 지역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번 세

미나가 지속적으로 국정운영의 비전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이 국민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수목원에 '랜드마크 광장' 오픈

도공 전북본부, 메인광장·서양정원으로 구성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25일 한국도로공사수목원에 다양한 문화체험 및 소통, 휴식을 위한 랜드마크 광장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도공수목원 랜드마크 광장은 4000여㎡의 면적에 각종 조형물과 초화류가 어우러진 메인광장과 연못, 서양축배 수벽을 조성한 서양정원으로 구성됐다.

메인광장은 대형 수목조형물을 비롯해 정원사 가족 시설물이 설치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필수 포토존이 될 전망이다.

또 국화, 억새 등 70여종의 형형색색의 초화류(아름다운 꽃이 피는 종류의 풀)를 통해 가을의 정취를 맘껏 느낄 수 있다.

서양정원은 물빛과 하늘빛이 조화된 연못 수면 위로 연잎이 띄워

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주변을 둘러싼 측백나무 수벽이 아늑함을 더해 감상 및 휴식을 취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으로 꾸며졌다.

도공수목원 관계자는 "랜드마크 광장은 앞으로 각종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경험하고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의 장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공수목원은 지난 1972년 고속도로 건설로 훼손된 자연환경 복구를 위해 조경수목과 잔디를 공급하는 묘포장으로 출발해 현재 192과 3410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1992년부터는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돼 연간 25만명이 넘는 이용객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뉴시스

전북도 학교급식용 농수산물 '안전'

전북지역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는 농수산물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5일 "학교급식에 사용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농수산물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잔류농약 136건, 수산물의 중금속 32건, 방사능 검사 88건이다.

도 보건연구원은 올 연말까지 농산물 잔류농약 50건, 수산물의 중금속 10건, 방사능 66건 등을 추가로 검사할 계획이다.

도 보건연구원은 "앞으로도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농수산물을 철저히 검사해 업체들에게 식품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불량 식재료 유통 차단 등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학교급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전북교육청과 함께 나라장터와 사 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에 납품되는 식자재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다. /뉴시스

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우수'

전국 1위 선정... 4억2500만원 인센티브 받게 돼

전북도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의 '2016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평가에서 전국 시도 중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차선조정과 중앙분리대·신호기·교통안전표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국민안전처는 국비 집행율과 자체사업투자실적 등을 평가한다. /뉴시스

이 가운데 도는 전주 경기장사거리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각종 사업을 벌였고, 전국 1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도는 4억2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창부안축협
조합장 김대중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